



3월 21일 '프라임사업 준비위원회워크숍'에서 김병경 회장이 이원화 캠퍼스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벤트'에 활짝... 남은 사안 해결이 관건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경소정 기자 kyung@knu.ac.kr

48대 총학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복지 향상과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에 있었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25개의 세부공약 중 간식 사업, 축제, 공동구매를 포함한 21개의 항목이 학생복지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캠퍼스 이원화 문제와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와 관련한 대학행정 감시 항목과 자치위원회(자치회비 감사) 투명 운영, 카카오톡 엘로아이디를 통한 소통이 학생자치 강화의 영역으로 꽂혔다. 현재 25개의 세부공약 중 이행된 것은 9개 정도인데,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은 "죽제 이후 남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회의가 남아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지금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을 전망해봤다.

●'즉석 복지'에 집중,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시간 내에 시행이 가능한 복지정책이 주를 이뤘는데 실제로 간식 사업, 기업과의 제휴 할인 또는 공동구매나 춘·추계 축제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됐다. 다만 중·장기적 공약으로는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한 정책이 있었다. '우정원 리모델링' 공약의 경우 총학의 자치회비나 교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현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결국 현재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차별화된 죽제 조성' 공약은 개념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다.

학생복지 관련 공약은 ▲기숙사 여건 ▲장애학우 생활 ▲교육권 보장 ▲교통편 개선으로 나뉜다. 기숙사 여건에 관해서는 3 가지 공약이 제시됐다. 제2기숙사 룸메이트 신청제도 변경을 기숙사 측에 요청해 첫 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머지 휴게실 개선, 세탁실 CCTV 설치는 아직 이행되지 못한 상태다.

'장애학우들을 위한 개선사항' 역시 별 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상태다.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한 바로는 총학생회 측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형식적 강의 평가 ▲영어강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강의평가의 경우에는 시간강사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될 뿐, 전 입교원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문제를 학교 측에서도 인지하고 교수 업적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통편 개선에 관한 공약에 있어서는 여려 노력이 보였다. 수원역 간 통학버스 1대의 노선변경을 통해 영통역-사색의 광장 간 셔틀버스를 만들었고, 서울-국제 캠퍼스 간 셔틀버스의 배차 시간을 비교적 수업 시간에 맞도록 조정한 바 있다. 증차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의 한계는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교통 편의에 대한 부분은 개선된 측면이 있다.

종합해보면 주로 일회성 사업을 우선 실시한 결과 학우들에게 즉각적인 효용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 측과의 논의를 거쳐야하는 중·장기 사안을 놓치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돼 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로 후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후 상황을 기대해봐야 할 상황이다.

●프라임사업 논의서 이원화 문제에 선봉

양 캠퍼스 총학은 임기 시작부터 '프라임사업 종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실제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 소통위원회, 등책위에 참여하면서 대학본부와 수십 차례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캠퍼스 별로 프라임사업과 관련한 총투표를 진행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총학은 대학본부 측과 서울캠 총학의 관심도가 떨어진 '이원화 캠퍼스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이행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프라임사업과 관련해 대학본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총학회장은 학적 상에는 국제캠 단과대학에 속하지만 서울캠에 위치하기로 기획된 학과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많은 학우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수십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 총학 측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안서 제출 시점으로 인해 사업 진행은 급속도로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서울캠 총학 외의 모든 회의 구성원이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이외에도 총학은 학내 주요 사안에 관한 3개의 TF(학사제도, 마스터 플랜, 클린캠퍼스)를 만들었다. 한편 TF가 구성된 이후 학사제도 변경이나 마스터 플랜(SPACE 21



국제캠퍼스 김병경(체육학 2009·왼쪽) 회장,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 부회장

사업의 일환)의 진척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중문위와 화운위 회의록 안건으로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9월부터는 전국 대학생 단체와 총학을 중심으로 '입학금 반환 운동'이 일었다. 서울캠 총학의 경우 참여하고 있지만, 국제캠의 경우 '청년하다 경희대 지부'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캠 총학은 다음 등책위 이후 미래정책원에 TF 구성 요청해 학교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캠에서만 소송단이 400명이 넘어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이후 총학이 학교 측에 얼마만큼 협조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시 갈등...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어대학 교수들과 부총장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바가 있다. <관련기사: 대학주보 1608호 1면> 또한 현재 컴퓨터공학과 내에서는 커리큘럼 중복에 대한 우려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총학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거나, 학교 측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미흡한 면을 보였다.

●총투표 안건지 '답정너' 논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위의 4개의 안건으로 총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총투표 안건지를 접한 학우들은 편향된 질문지라는 여론이 일며 비판이 제기됐다. 제7차 중문 위에서 학생총회·학생총투표 선택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실제로 비슷한 문제제기

서 참고할 모델이 있음에도 보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파티플랜에 특화... 춘·추계 축제 진행

이번 총학은 테마별 특강과 함께 '차별화된 축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범문 스님, 취업 특강 등 다수의 특강을 진행하고 봄에 대동제, 얼마 전 가을에는 '경희한마당'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는 등 한 해를 지루할 틈 없이 채웠다. '파티플래너'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실제로 학우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경희한마당'의 공연 영상은 조회 수가 6천을 넘기도 했다.

10월 7일 기준으로 국제캠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약 240여 개의 게시물 중 축제와 관련된 흥보 및 안전의 게시물이 약 50개로, 전체의 5분의 1 수준이다. 비중을 볼 때 축제에 들인 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축제는 연예인 초청공연 및 토크쇼로 구성됐다. 공약으로 내건 '차별화된 축제 조성'과는 먼 양상이었지만, 주점 이후의 물품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활동과 함께 시험기간 직전 즐거움을 제공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SNS·접근성·소통

이번 총학은 활발한 SNS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공약 이행, 진행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성을 높였다. 공약으로 내세운 카카오톡 엘로아이디와 많은 페이스북 팔로워 수를 바탕으로 학내 주요 사안들 또한 공지하는 등 소통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한 달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총학은 학생들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여 노력한 학생회였다. 한편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간 면은 있지만, 학교 측과의 논의나 교육권과 같은 사안에 대한 성과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서울캠과 비교할 때 외부 집회 활동보다는 학내 활동에 집중했음에도 비교적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적이 미흡했던 점은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보는 중요한 영역이지만 묵묵히 학생 대표로서 학교 측과 협의하고 고집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이행되지 못한 공약들과 함께 현재 학내 이슈들(입학금, 학사제도 등)을 고려해 이후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